

트럼프 대통령 탄핵 스캔들,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

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식 제기

-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알 그린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 방해(Obstruction of Justice) 혐의로 탄핵을 공식 제기했다.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(FBI) 국장을 소환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코미 국장의 메모가 공개되며 발단이 되었다.
-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요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법방해에 해당된다.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 사임하게 된 이유도 사법방해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. 탄핵 추진에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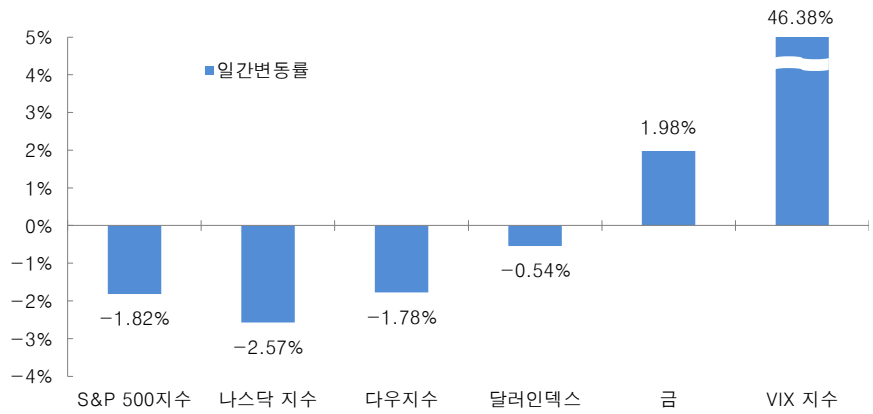
요동치는 금융시장

- 미국 증시는 트럼프 스캔들에 급락했다.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.78%(372.82p) 하락한 20,606.93p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S&P500은 1.82%(43.64p), 나스닥지수는 2.57%(158.63p) 하락했다.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난 한달의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스닥지수는 6,000선을 위협받고 있다.
- 공포지수인 VIX지수는 급등했으며 달러인덱스는 급락했다.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6월 인상 확률도 이번 스캔들로 인해 최근 일주일간 하락하고 있다.

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낮음.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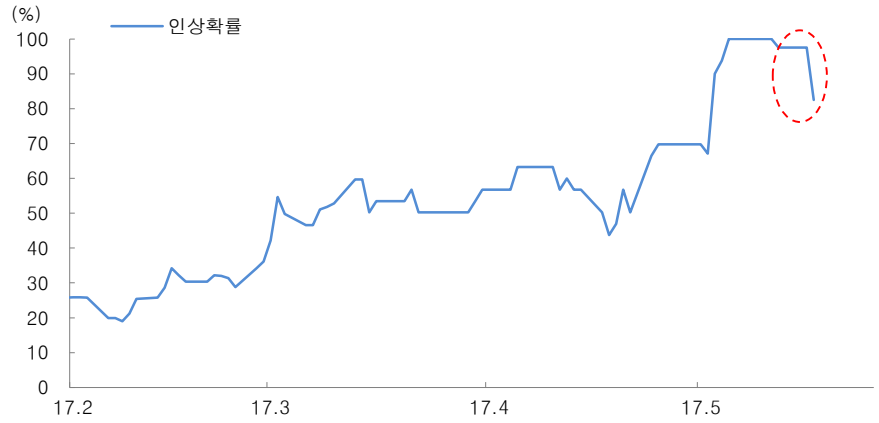
- 다만 탄핵은 사실상 어렵다.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안 발의되고 이후 연방대법원장 주재 하 탄핵 심판에서 상원의 2/3 동의를 있어야 하는데 상/하원 모두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이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 특검의 활동 및 사법부의 심리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.
-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FBI와 백악관에 코미 전 국장의 메모와 백악관의 녹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. 코미 전 국장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중단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의 대화기록에 대한 음성 녹취가 있으니 이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.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증언에 나설 경우 트럼프 스캔들은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을 추진하자고 얘기되고 있으며 민주당 중심의 특검 도입과 의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.
- 당분간 트럼프 스캔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집권 초기라는 점과 공화당이 집권당이라는 점을 감안해 탄핵은 모면할 수 있으나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.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으로 트럼프발 정책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.

그림 1. 미국 3대 증시 급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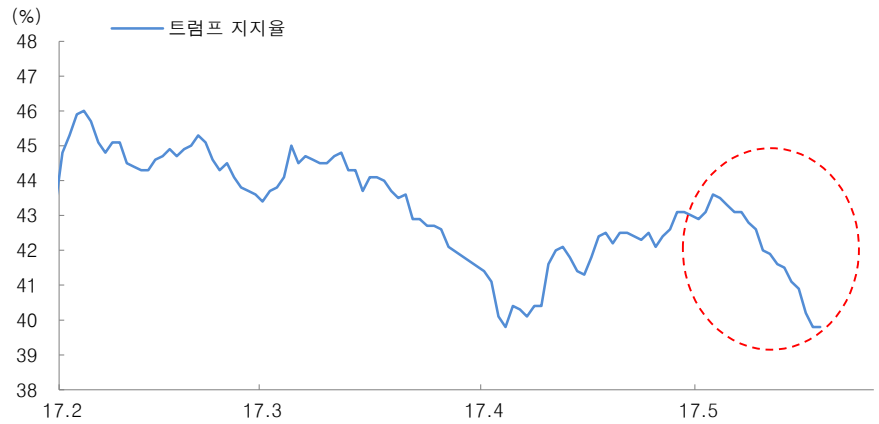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미국 6월 금리인상 확률 하락

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3. 하락하는 트럼프 지지율

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▶ 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 : 김세찬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